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년 5월 17일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용범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5월 10일(火), 차재홍 의원 외 17인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6년 5월 10일(火)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서울시에서 조성한 경의선숲길 공원화 사업 중 연남동 구간과 마포구에서 조성중인 선형의 숲과의 연결 구간이 홍제천으로 단절되어, 경의선숲길 이용자와 홍제천을 통해 한강으로 나가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성산천 가도교 공사가 하천횡단 철도 교량의 침수예방 및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이유로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되어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공단에 촉구하고자 결의한 사항임.
- 지난해 서울시가 주관한 “2015년 서울시 10대뉴스”에는 폐철 길을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시킨 경의선숲길 조성사업이 2위에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2016년 6월에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게 되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마포는 최고의 주거 여건을 갖춘 살기좋은 녹색환경 도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 숲길 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곳곳이 단절되어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략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
- 또한, 경의선 신촌~가좌간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 5억 5천만원의 예산 및 인력 낭비는 물론, 경의선숲길 공원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이용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임.
- 성산천 가도교는 1936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수십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과 연남동과 가좌역을 연결해 경의선숲길 및 홍제천을 통해 한강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은 2014년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호협의로 2016년 5월초 준공 예정 됨.

-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40만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개량사업을 다른 공법으로 추진하여 중단된 성산천 가도교 보행연결데크 공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추진하여 줄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촉구하는 것은 마포구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 됨.